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 · 최재용 · 이윤호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요가 점증하면서 부적응으로 인한 사회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한 주민보다 높은 범죄율은 시급히 관리되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에 있음에도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미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존의 연구자료를 종합하여 실태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위에 사회유대이론, 긴장이론, 낙인이론,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일탈하위문화이론 등 주요 범죄학이론을 분석의 틀로 설정,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가해 가능성과 취약성에 집중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범죄학이론, 취약성, 범죄피해

I. 서론

1990년을 전후하여 북한의 중앙배급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남한¹⁾으로 유입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12년부터 북한당국의 국경통제가 삼엄해지면서 증가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누적된 총 인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월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7,810명으로 추정된다.²⁾ 이는 본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1998년의 추정치인 947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약 28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의 증가 추세와는 별개로 북한의 상황은 언제라도 예기치 않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응책의 마련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한관수(2010)는 북한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시기에 북한이탈 난민의 15%인 10만 명 정도가 북한을 떠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통제력을 상실하면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60만 명 규모의 북한이탈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³⁾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의 증가 때문만이 아니다. 물리적 수의 증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지니는 몇 가지 특성들로 인해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표현과 남한이라는 표현을 필요에 따라 혼용한다.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지만 외국에서는 남한 또는 북한이라는 표현을 언론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통일부 정착지원과 통계, 2015.

3) 해당 논저에서는 북한 위기상황에서 발생될 난민 인구를 총 70만 명으로 예측하였다. 한관수, “북한 위기상황시 난민 규모 &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신동아』, 4월호(2010) 참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율은 10%에 달한다.⁴⁾ 이는 한국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 4.3%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재범 비율 역시 우리나라 전체 재범 비율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율 또한 23.4%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사회의 적응에 있어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능성 증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화적 이질성과 한국사회 법제도에 대한 무지 등 북한이탈주민이 가지는 취약점은 범죄 가해 및 피해 유발의 주요 요인이 된다. 만약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 범죄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그리고 미래에 유입될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국민의 정서적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다.

이 논문은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가능성과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론과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미흡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에 대한 통계자료는 기존 문헌 및 논문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장준오·이정환(2006)에서 활용된 설문조사 원자료를 2차 활용해 빈도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했다.

4) 김운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책임연구 보고서)』(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이 수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도 있다. 자세한 것은 각주 11번 참조.

II. 북한이탈주민 현황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을 연령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2012년 기준 24,201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 2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이는 범죄사회학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유입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경찰청의 공식집계를 살펴보면 국내 전체 범죄자의 연령 구성은 20대와 30대에 약 40.8%가 집중되어 있다.⁶⁾ 대한민국의 일반적 범죄 가담 연령이 신체적·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이 전제되는 20대에서 3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인구 구성에서 20대 및 30대의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은 범죄 노출 비중 역시 높을 것이라는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평균 70% 이상을 웃도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난 이후 여성이 생계주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취업 및 혼인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탈북을 결심한 결과로 추측된다.

5)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 편람』(서울: 통일부, 2012).

6)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표 1〉 북한이탈주민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3월 (잠정)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4	51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241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6	292
여성비율	12%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0%	72%	76%	78%	83%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92	1,508	2,236	1,924	1,171	441	308	8,180
여	593	1,789	5,410	6,143	3,275	990	870	19,070
합계(명)	1,185	3,297	7,646	8,067	4,446	1,431	1,178	27,250

구분	관리직	군인	노동자	무직부양	봉사분야	예술체육	전문직	비대상 (아동 등)	기타	계
남	341	622	3,541	2,988	69	72	198	301	48	8,180
여	107	95	6,891	10,027	997	164	420	271	98	19,070
합계(명)	448	717	10,432	13,015	1,066	236	618	572	146	27,250

출처: 통일부(<http://www.unikorea.go.kr>)

※ 사망, 말소, 이민자와 주소 미등록, 보호시설수용자 제외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경력단절 및 고용불안으로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겪으면서 다양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20대에서 50대 탈북 여성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여성 8명 중 1명은 국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및 유흥업소 종사에 대한 비율은 각각 4.3%와 11.4%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권유를 받은 비율 역시 30%라는 낮지 않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유흥업소 성매매피해 인구가 약 2%인 것과 비교하여 성매매 종사경험은 두 배, 유흥업소 종사경험은 약 다섯 배

가량 높은 수치로, 탈북여성의 성 관련 범죄노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⁷⁾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거주 당시 직업 유형 역시 고려될 만하다. 2012년 10월 입국자 기준으로 그들의 재북 직업 유형은 무직부양(48%)과 노동자(3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⁸⁾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의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고자 탈북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직업지위를 누리던 북한이탈주민 역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직업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탈주민의 비중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의 직업지위가 한국사회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마땅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위협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생계난민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 근로 소득은 104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51~100만 원 이하의 비중이 34.5%에 달했다.⁹⁾ 이는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개선된 결과라고는 하나, <표 2>에 따르면 실업률이 10%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국민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여전히 취업 및 경제적 어려움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생계를 이유로 범죄에 가담하거나 돈과 관련한 범죄에 쉽게 현혹되어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7) 김재엽·김희진,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서울: 여성가족부, 2012).

8)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표 2〉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인구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율(%)	실업률(%)
전체(명)	396	190	171	19	206	48	43.1	10
수도권(명)	263	116	104	12	147	44.1	39.5	10.3
지방(명)	133	74	67	7	59	55.6	50.4	9.5
일반국민 (천 명)	40,803	24,538	23,684	853	16,265	60.1	58	3.5

출처: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 북한이탈주민 범죄 관련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그에 동반되는 문제들은 범죄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표 3〉에 따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99명이 각종 형사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비율은 한국사회 전체 평균 범죄율인 4.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6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절도 64건, 상해 58건, 문서 위·변조 46건, 사기 3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⁰⁾ 이는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경제적

¹⁰⁾ 이 통계수치에 대해 경찰청과 통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범죄 발생률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수치를 합산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에 범죄율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저지른 형사범죄 가운데 11% 정도를 차지하며, 그 시작은 단순 사기행각이었으나, 점차 전문화·조직화 되어가며 보조금, 또는 보험금을 이용하는 집단적 사기행태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사기 혹은 폭력과 같은 범죄 외에 범죄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약물 관련 범죄율이다. 그들은 자체적인 연결망을 통해 마약 거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마약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의 마약 공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개 중국을 통하는 탈북 과정에서 마약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¹¹⁾

〈표 3〉 북한이탈주민 범죄현황

계	형법범									특별법범	
	소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조 변조	기타	교통 사범	기타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출처: 경찰청 보안국, “북한이탈주민 범죄 및 피해예방 대책,” 2007년 2월.

나아가 2009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자들 1인당 평균 재범 전과 건수는 0.3건에서 0.7건을 나타내고 있다.¹²⁾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재범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재범 비율보다 2~5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사사법체계와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를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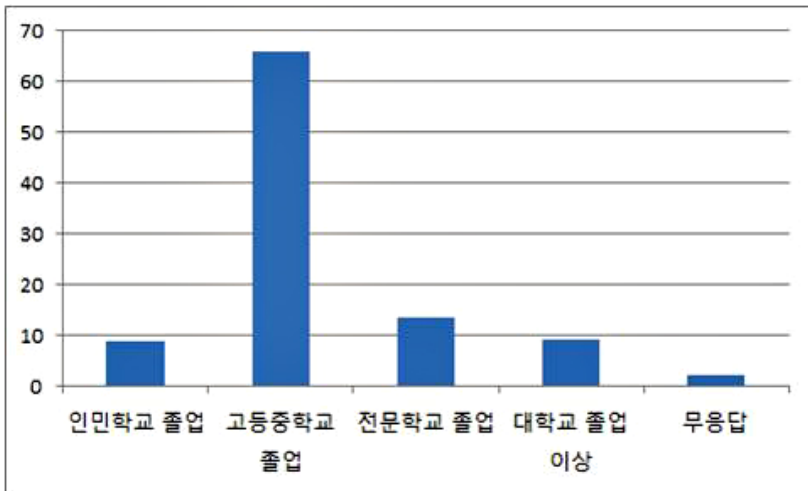
11) 장준오 · 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 우리나라 전체 범죄자 중 동종·이종 전과를 구분하지 않고 살인은 평균 0.5건, 폭력 0.4건, 상해 0.7건, 절도 0.46건의 재범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범죄 가담과 동시에 범죄 피해율 역시 심각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율은 23.4%에 달한다. 피해율 역시 국내 평균치보다 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 피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간의 범죄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연결망 내부에서도 그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사회의 일반 국민 및 같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과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모두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내재적 특성

〈그림 1〉 북한이탈주민 재북 학력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11).

본 연구에서는 주로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문제를 이론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이탈주민의 부적응 문제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내재적 특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상당수는 당 간부 등 고위층보다는 주로 함경도를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프에 따르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70% 이상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중학교 졸업생이었고 앞서 <표 1>이 보여주었듯이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주된 직업유형은 무직부양(48%)과 노동자(3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탈북 동기를 통해서도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012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밝힌 탈북동기(복수답변)는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5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자유를 찾아서(32%)’, ‘북한체제가 싫어서(23.6%)’,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19.0%)’, ‘가족을 따라서(1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¹³⁾

위의 두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바는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상대적인 저학력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며 탈북 과정 역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부적응 문제를 겪는 것은 물론 문화적 차이나 제도, 사회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사회에서 적응력이 낮았던 ‘일탈자’적 특성 때문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추가

¹³⁾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pp.82-83.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표 4〉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종사상 지위

구분		사례수(명)	2011년 북한이탈주민(%)	일반국민(%)
임금근로자	상용직 근로자	1563	45.4	42.3
	임시직 근로자	524	15.2	21.3
	일용직 근로자	1107	32.2	7.6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고용원 없음)	176	5.2	17.2
	고용주(고용원 있음)	43	1.2	6.3
	무급가족 종사자	27	0.8	5.3
모름/무응답		98		
계		3538	100	100

출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2011).

위의 자료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업 종사상의 지위를 나타낸 표이다. 일반 국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4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구조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비중, 근속 기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2011년 기준 북한이탈주민 19,386명 가운데 46.7%인 9,04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취업자의 경우에도 직장 적응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는 평균 근속 기간이 15.8개월로 남한 상용근로자의 74.4개월(6.2년)의 20% 정도 수준에 그쳐 매우 짧았다.¹⁴⁾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들은 상당수가 국내 입국 전 다양한 경로로 범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탈북 당시 각종 범죄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었던 경험과,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 속에서 겪은 범죄 역시

14) “국감심윤조 ‘탈북자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뉴시스』, 2012년 10월 8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대대적 손질,” 『서울경제신문』, 2012년 6월 20일.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높은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가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6월 말까지의 기간 중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4080명 가운데 10.7%인 436명이 북한과 중국 등 국내 입국 전 제3국 체류 시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¹⁵⁾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의 미약한 사회적응력은 범죄문제를 심화시키는 내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북한이탈주민과 최근 국내 경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을 구별하는 요소가 된다. 물론 북한이탈주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경험하는 범죄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불가항력적인 환경적 요인에 영향 받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범죄에 노출된 채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과, 흔히 북한이탈주민 범죄 문제를 다룰 때 함께 이야기되는 이주노동자 문제는 그 대안 제시에 관해서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선행연구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를 크게 현황연구와 정착지원 연구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현황연구는 경제적 지표 혹은 삶의 질 지표와 같이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착지원 연구는 정책지원이라는 제도적 측면이라는 접근과 적응지원이라는 북한이탈주민 내부 측면에 대한 접근으로 나뉜다. 다시 말해, 정책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

¹⁵⁾ 범죄유형은 살인 10명, 인신매매 23명, 강간 및 강절도 151명, 마약 밀매 및 복용 10명, 폭력 98명, 공금횡령 21명 등이다.

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적용지원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정신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밝혀 그들의 수월한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북한이탈주민 수요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연구가 여러 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를 포함한 북한관련 기관을 비롯하여 사회학회 및 심리학회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연구가 제공되기도 한다. 그러한 연구 중에서도 특히 비중이 높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및 정책 연구이다.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의 대전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수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들에 대한 전략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주를 이룬다.

조동운·김용태(2011)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저는 하나원을 통한 사회적응 교육, 정착비와 주거지원비 및 취업지원, 취득장려금과 사회보장지원과 신변보호를 아우르는 현행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행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과제로 가치관과 문화적 이질성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 및 심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희·전우택·조영아(2010)에서는 2007년 입국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같은 문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해당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우울 및 불안 유병률이 약 48%에 이른다는 점을 밝히며, 북한이

탈주민이 일반 국민보다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요인은 주로 가족의 상실과 같은 관계 상실 요인과 더불어 실제 폭력, 생명의 위협, 인신매매 등의 범죄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및 문화적 고립 등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진행되어 온 사실이 있으나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2005) 등을 통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입증되었고 이후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이미 밝혀져 왔다. 이에 덧붙여 그들의 사회 적응도 하락을 설명하기 위한 요인으로 심리적 측면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과 우울 및 외로움 등의 문제에서 경제적인 지표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연희·전우택·조영아(2010)는 응답자가 본인의 초기 근로능력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정신건강에 부(負)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최초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당시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 적응도가 떨어지게 되고 적응도가 떨어지면 스트레스 증가 등의 요인과 더불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 볼 점은 현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그들의 원활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정착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적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한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범죄에 대한 노출이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에 머물게 될 경우 범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이질성을 극복하

지 못할 경우 한국 사회의 법제도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범죄피해의 대상이 되기 쉽고 반대로 범죄 노출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은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대상이 아닌 다른 범죄 연구에서도 그러하듯이 범죄 가해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과 같은 기관이 아닌 이상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수집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해를 저지른 원인도 매우 다양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 역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어 언론보도 등 표면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즉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원자료 수집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자의 범죄에 대해 밝히는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경험적 연구보다는 문헌 연구를 이용한 논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한계가 생긴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실증 연구는 장준오·이정환(2006)이 시발점이 되었다. 이 논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범죄피해 의식 및 실제 경험 등을 조사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는 앞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인구집단으로 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이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보탬이 되는 자료의 축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장준오·고성호(2010)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범죄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0년

6월 22일자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모든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는 재소자에 대한 기록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이탈주민 재소자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문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당시 표본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범죄연구와 구별된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 연구는 당시 이 논문이 유일했으며 이전까지는 북한이탈주민 표본 몇 명을 선정하여 면담조사를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실증적 접근이 시도된 이후 경찰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한 김윤영(2007)의 연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연구자가 본인이 필요한 자료의 형태를 구성하지 못하고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에는 1차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윤홍희(2010)의 북한이탈주민 마약류 범죄 연구가 있다. 윤홍희는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마약범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 면담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고, 면담조사가 가능할지라도 대체로 눈덩이표집을 활용한 방식에 의존하게 되기 쉬우므로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한 연구방법은 일정부분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자료 자체의 근본적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범죄관련 연구는 누적된 실증자료의 부족과 면접방법 및 기존 언론보도 자료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연구 역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외부, 내부 요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법론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북한이탈주민 범죄에 대한 또 다른 연구 경향이 주목되는데, 그것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서도 여성 관련 범죄의 연구 비중이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재엽 외(2012)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다양한 범죄 피해 경험을 다루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4월에서 6월까지 두 달여간의 기간을 두고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도출될 수 있는 오류를 심층면접이 보완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비교적 높다. 이처럼 최근에는 설문자료를 구성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국한된 자료이므로, 북한이탈주민 전체로 확대한 연구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범죄 연구의 경향은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피해상황과 원인을 밝히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재고해야 한다는 논지의 연구는 많이 있으나 범죄와 관련해서 전개한 연구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조동운·서기주(2012)와 이창무·김주찬·한상철·신현주(2010) 등 최근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로 김윤영(2009)을 비롯하여 신변보호와 관련된 보안(경찰)기관의 대응방안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문들이 여러 편 등재되어 있다.

이들 논저의 전반적인 흐름은 기존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이마저도 북한이탈주민 범죄를 주로 다루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전반적인 인권과 정착에 비중을 두고 있다. 고성호(2005)와 장준오·이정환(2006), 장준오·고성호(2010) 등이 북한이탈주민 범죄 전반을 다루려고 시도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전체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실제로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될 위험에 더욱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시급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범죄는 실제로 사회적인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진단은 미흡하다.

IV. 이론과 현황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해마다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된 비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탈북을 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이 탈북한 이유는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하여 북한 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권리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분포한 위치는 높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사회유대의 약화와 긴장의 고조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1. 유대이론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허쉬(Hirschi Travis)가 주창한 범죄이론이다. 이 이론은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사회에 순응하는 이들에 중점을 둔다. 어떠한 차이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인간상을 만들어내는가가 그의 관심사였다. 그가 설정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질서와의 유대가 깨졌기 때문에 개인은 자유로이 일탈행동을 하는 것이다”¹⁶⁾

허쉬는 애착, 관여, 참여, 신념 등의 사회유대의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서 이 유대의 정도가 강하다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유대의 정도가 약하다면 더 많은 일탈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네 가지 요소 중 애착은 부모나 학교 그리고 배우자 등 타인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존재들이 본인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걱정해 범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강혜영(2009)에서는 남한에 입국한 지 5년 이상 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 생활양상을 설문조사하였다(〈표 5〉 참조).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193명 중 독신이 55명(28.5%)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 중 상당수가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통 오랜 시간 하나의 사회에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독신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유대의 끈을 형성하고 있다. 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관계 맺을 대상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가까워서 유대의 끈을 제공할 가족이 부재하다는 점은 일반 국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큰

¹⁶⁾ Hirschi Travis,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파급 효과를 미친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애착이라는 유대 요소가 약화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다시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표 5〉 북한이탈주민 가족구성원

구분	N	%
독신	55	28,5
독신, 배우자	35	18,1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36	18,7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이상	30	15,5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4	2,1
본인, 배우자, 부모	1	0,5
기타	32	16,6
합계	193	100

출처: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2009.

사회유대의 또 다른 요소인 신념은 전통적인 사회질서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라는 특수한 법질서 하에서 오랜 기간 사상교육과 정신교육을 받았으므로 대한민국 사회의 준법규범을 내면화하는 것이 비교적 어렵다. 그리고 이는 사회유대의 요소인 '관여(commitment)'와도 연결된다. 관여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관행에 대한 개인의 투자 및 순응 정도를 통해 얼마나 당사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가를 뜻한다. 즉 사회적 관습의 내면화와 그것을 통해 기대하는 이해관계의 문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와는 전혀 다른 남한사회에서 관여를 통한 투자를 모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표 5〉와 같이 독신으로 생활하는 비중이 높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사회유대이론에 따르면 적법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합법적 활동에 참여할 시간을 줄인다. 전통적인 활동이나 규범적 생활 등이 적법한 활동에 해당된다.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 연구를 참조한 <표 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여가활동의 약 70% 이상이 독서, TV시청, 컴퓨터 등 실내에서 혼자 하는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친구를 만난다는 응답은 사실 10대와 20대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므로, 그 외의 북한이탈주민은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윤인진(2007)에 따르면 2005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실태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가장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역시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시청과 같은 대중매체 이용으로 소극적 소일거리형 여가활동이었다. 반면 취미 및 그 외 여가 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 활동, 학습 활동 등 적극적 자기개발형 여가 활동을 하는 사람은 5% 미만이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여가가 혼자 하는 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삶의 질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활동에서 유대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 북한이탈주민 여가활동

	빈도	유효퍼센트
독서	106	16.8
TV시청	287	45.5
컴퓨터	118	18.7
영화	5	0.8
친구만남	58	9.2
기타	48	7.6
여행	9	1.4
합계	631	100

출처: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연구』, 2003.

사회유대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사회에 입국한 후 새롭게 적응하고 뿌리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낯선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선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은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이다. <표 7>에서 보듯,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 조사 설문자료에서 단체 활동 참여 여부 문항을 빈도분석 한 결과 반수에 가까운 43.9%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 활동이 전무하다고 밝혔고 또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남한 사람 종교단체에 참여한 경우가 3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북한 출신 친구 모임은 14.8%로 사적인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비록 표에서 북한 출신 관련 모임 참여율을 합치면 53%로 남한 사람 관련 모임의 46.9%보다 높지만 북한 출신 친구 모임 이외에 종교 모임이나 사회단체 모임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친목 모임보다 사회유대형성 기능이 떨어진다. 본 자료를 통해서 모임의 반복참여 횟수, 마지막으로 참여한 날짜 혹은 참여의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으나, 근본적으로 남한 주민보다 사회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모임의 참여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유대형성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간의 집단 교류도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보면 그들이 사회에서 고립될 우려도 있다.

유대이론에 따르면 아직 남한의 사회관습을 내면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도기에 그들은 그들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과 정서를 지닌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여 우선적인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표 6>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유대가 오히려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여겨져 온 남한 사람과의 활동보다 빈도수가 더 낮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북한이탈주민 단체 활동 참여

정기적인 단체 참여 여부	빈도	퍼센트
있다	120	56.1
없다	94	43.9
합계	214	100
참여단체	빈도	퍼센트
북한출신자 사회단체	37	24.8
북한출신 친구모임	22	14.8
북한사람 종교단체	20	13.4
남한사람 종교단체	54	36.2
남한사람 사회단체	16	10.7
합계	149	100

출처: 장준오·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2006.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간 교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탈주민들의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유지된다면 그들이 참여하고 애착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다. 동시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새롭게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조기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정보의 교환과 유대를 통한 심리적 안정은 남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범죄 유혹이나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2. 긴장이론

#1. 2003년 겨울 탈북한 A(42·여)씨는 이듬해 7월 남한에 입국했다. 그러나 남한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정부 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북한과 달리 치열하게 경쟁해야 돈을 벌 수 있었다. 정착 이후 3년간 생활보호자 신세를 면치 못한 A씨의 선택은 놀랍게도 ‘마약 밀매’였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북한계 필로폰 1억 6,000만 원 어치를 들여오려다가 적발돼 구속됐다.¹⁷⁾

#2. 북한이탈주민 B(32·여)씨. 지난해 1월 전문 브로커의 도움으로 입국했다. 정부 정착금이 나오면 거액의 사례비를 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정착 교육을 받고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B씨 수중에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브로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B씨는 다른 탈북 여성 3명과 함께 강원 춘천의 유흥업소에 취직,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¹⁸⁾

긴장이론(Strain theory)은 성공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수반되는 스트레스나 좌절 또는 긴장 등이 규범 위반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이다. 긴장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앞서 제시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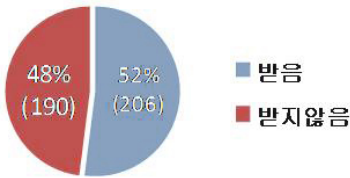
특히 머튼(Robert Merton)은 긴장이론 중에서도 열망과 기대 간의 격차에 주목한 이론을 제시했다. 모든 사회 안에는 승인된 가치와 목표가 있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허용된 규범과 제도화된 수단은 제한된다. 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범죄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표 8〉을 보면(2010) 북한이탈주민 396명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를 수급 받는 경우가 52%로 절반을 넘는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 위치에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9〉를 보면, 그들은 기초생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을 취업해서 받는 급여보다 생계비를 받으며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이 편하고 전체 수입이 많기 때문(20%)이라고 하였다. 이는 가족에 환자나 학생이 있어서(40%)라는 특수한 경제적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7) “탈북자 5명 중 1명, 범죄수렁에 빠졌다,” 『한국일보』, 2008년 7월 29일.

18) 위의 글.

〈표 8〉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생계비
수급 여부



〈표 9〉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구분	N	%
취업해 받는 급여보다 생계비 받으며 임시직로 일하는 것이 편하고 전체 수입이 많으므로	30	20
취업을 하여 생계비를 못 받으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7	4.7
생계비를 오래 받는 것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풍토 때문에	3	2
취업한 곳에서 퇴사하게 되면 살 길이 걱정되어서	28	18.7
가족에 환자나 학생이 있어서	60	40
기타	22	14.7
합계	150	100

출처: 〈표 8〉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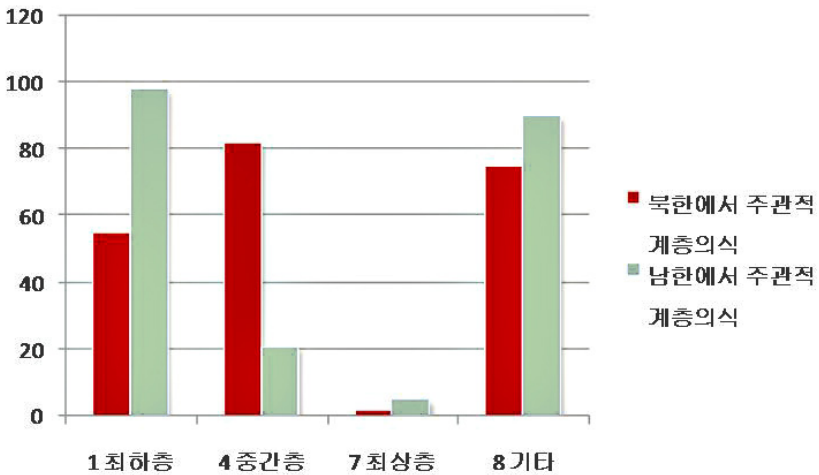
〈표 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1.

〈표 10〉과 〈표 11〉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탈북이유를 빈도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가난 및 돈 벌기 등 경제적 원인으로 탈북을 결심한 비율은 약 55%로 절반 이상이다.¹⁹⁾ 그러나 북한과 남한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오히려 남한에서 자신을 최하층으로 인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최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제외하면, 북한에서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탈북으로 얻고자 하는 경제적 안정이 충족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지속되어 긍정적인 자극이 사라지면 개인

¹⁹⁾ 물론 본 자료는 2006년 자료이므로 현재 상황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소외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들이 여전히 경제적 원인을 이유로 탈북을 감행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더 나아가 사회의 긴장을 증대시켜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표 10〉 탈북 이후 주관적 계층의식 변화



〈표 11〉 탈북 이유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1 가난	81	37.9	37.9	37.9
2 돈벌기	36	16.8	16.8	54.7
3 남한사회에 대한 동경	20	9.3	9.3	64
4 직장문제	4	1.9	1.9	65.9
5 정치적 박해(사상적 문제)	41	19.2	19.2	85
6 가족문제	6	2.8	2.8	87.9
7 가족 따라서 그냥 왔음	20	9.3	9.3	97.2
8 기타	6	2.8	2.8	100
합계	214	100	100	

출처: 장준오 · 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2006.

사회유대이론과 긴장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처지와 범죄의 관계를 조망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단의 부재, 차별 문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범죄학 이론의 관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범죄 가능성에 영향을 높게 미친다.

매년 2,0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 언제 북한이탈주민의 급격한 유입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들이 초래할 인구 구성학적 변동 과정은 또 다른 화두를 제기한다. 다가올 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차지하게 될 위치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범죄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우할 것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별과 편견이 야기하는 폐해를 사회적 맥락의 틀 안에서 다루보겠다.

3. 낙인이론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개인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응해서 변화하는 존재로 상정한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탄넨바움(Tannenbaum, 1973)에 따르면, 행위는 본래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지만 사회적 맥락 안에서 모든 행위들이 다르게 판단된다고 한다.²⁰⁾ 때문에 낙인이론은 처벌이 오히려 일탈행동을

²⁰⁾ Frank Tannenbaum, "The dramatization of evil," E. Rubington and Martin S. Weinberg, eds., *Devi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1973).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타인들에 의해 범죄자로 인지된 개인은 그 자신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탈행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베커(Becker, 1963)가 지적했듯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이들은 국외자로 규정되기 쉬우며 일탈 집단으로 오인 받는 경향이 있다.²¹⁾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처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이들이 사회적 집단이 정의하는 규칙에 의해 낙인이 찍히는 현상을 지적한다. 낙인이론이 나아가 경계하는 것은 이렇게 낙인이 찍힌 이들이 낙인찍힌 바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한다는 점이다.

레머트(Lemert, 1951)는 “어떤 사람이 행동의 결과인 사회적 반응 때문에 발생한 드러나거나 숨겨진 문제에 관해 방어, 공격 혹은 적응의 수단으로 일탈 행동이나 그 역할을 시작할 때, 그 일탈은 이차적이다”²²⁾라고 기술하였다. 다시 말해 낙인이 찍힌 이들은 이차적 일탈의 과정을 통해 일탈 행동을 강화하므로, 이 구조 안에서는 이들이 일탈자라는 낙인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 12〉를 보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국민이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낙인이론을 접목하여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범죄의 실행 유무를 떠나 일탈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쉬우며, 이들에게 낙인이 찍힌 후에는 스스로가 정체성을 그

²¹⁾ Howard S. Becker,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²²⁾ Edwin M. Lemert, *Social pathology: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1951).

방향대로 형성해 이탈자라는 분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표 12〉 일반 국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응답률	2007	2008	2009	2010	2011
친근함	36	36.2	36.3	42.5	40.9
친근하지 않음	63.8	63.8	63.3	57.5	58.9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의식조사』, 2012.

사회심리학자 쿨리(Cooley, 1902)에 따르면 사회의 구성원은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아닌 이질적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²³⁾ 같은 이해관계와 동질성을 공유하는 집단 간에는 강력한 유대가 발현될 수 있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발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를 겪으며 한 사회 내에서 이질적인 다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 질서와 가치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사회적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새로운 소수집단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면, 그들을 차별함으로써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나타날 변화를 잘 수용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적절한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 회의적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긍정적 인식 제고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²³⁾ Charles Horton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고 이러한 규범과 인식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동등한 공동체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그들을 받아들일 새로운 인식 체계가 필요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조화롭게 융합되지 못하고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리되어 여겨지면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는 좁혀지기 힘든 거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주류 공동체인 한국 국민과 소수 공동체인 북한이탈주민을 결정적으로 분리하는 기제는 차별에 있다. 경제적으로 낙후한 북한이라는 배경을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을 본인보다 낮은 위치의 집단으로 정의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이므로, 차별기제는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로 인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가해진다면 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차별이 범죄와 연결되는 이유는 차별이 차별을 가하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차별을 가하는 주체는 주변에서 비롯된 학습 등의 요인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에게 그들이 차별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력히 부여하게 된다. 또한 차별을 받는 주체는 본인을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주체에 대해서 강한 반발심과 억울함 등의 감정을 품을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두 공동체 간에 갈등을 일으킬 긴장이 증폭된다는 뜻이다. 이는 더 나아가 두 집단 간에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는 배경이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집단 크기가 일반 국민에 비해서 작다는 사실 자체도 범죄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처럼 동일한 사회문화적 성장배경을 공유하는 소규모 집단의 경우에는 그들의 내부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것은 범죄의 가해 및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가해의 경우에는 소수의 집단일수록 집단 내에서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빠르

고 단체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단체 보험사기 사건²⁴⁾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고 기댈 곳이 북한이탈주민 상호 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릇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내부 결속력이 증가하면 자신과 다른 속성을 띠는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 성향도 증가할 수 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배타적으로 대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역시 한국 사회를, 자신을 보호해주는 새로운 삶의 터전과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을 차별·배척하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리는 긴장을 더욱 고착화하고 강화한다. 피해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정보에 어두운 소수집단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내부의 연결망 규모는 작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가족 내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들을 주변 인물이 거의 없는 북한이탈주민은 그만큼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4.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범죄에 노출되는 근본적 배경에는 경제적 원인이 있다. 따라서 범죄와 직결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내

24) “생계 막막해서...’ 새터민 집단 보험사기,” 『부산일보』, 2012년 8월 23일.

적, 외적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 대표적으로 남한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어 적응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Immigration/Economic inequality theory)을 통해 살펴보자.

북한이탈주민의 탈북과 입국 동기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물질적으로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경제적 이유나 정치적 확대를 피해 피신한 정치적 망명의 성격, 혹은 자녀에게 보다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는 사회적 이유 등이 있다.²⁵⁾ 그러나 근본적인 탈북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정치적, 사상적 자유를 위해 탈북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상적 자유만으로는 만족을 얻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결국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준오·이정환(2006)에서 실시된 설문 가운데 탈북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가난’, ‘돈벌기’, ‘직장문제’ 등 경제적 원인과 관련된 답변을 한 사람은 전체 214명 가운데 121명으로 약 57%였다.²⁶⁾ 탈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이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지 못하는 현실에 부딪치면 북한이탈주민은 일종의 아노미(anomie)를 겪을 수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경제적 문제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이며, 여전히 수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성취가 북한이탈주민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늠할 수 있다.

장준오·고성호(2010)는 이와 같은 논지의 배경을 국제이주의 경제적

25)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

26) 장준오·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적 거시이론을 통해서 찾고 있다. 국제이주는 방출과 유인 요소로 설명되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이주의 한 형태라고 가정한다면, 경제적 측면의 방출과 유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낮은 삶의 질과 경제난이 방출 요소로 작용하고 북한 내부에서 얻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기대와 동경이 유인 요소로 작용한다. 즉 북한에서의 생활과 비교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기대가 탈북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 북한이탈주민은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노동시장 진입 자체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써 지속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장기적인 삶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가졌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1년 이상 장기근속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둔 비율이 61%에 달했다.²⁸⁾ 즉,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외적 요인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차별 문제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소수집단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차별은 노동시장 내에서도 존재한다. 밑바탕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일반 한국 국민보다 능력이 뒤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27)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 실태 및 대책』.

28)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이전에 품었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내적인 갈등과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잠재적으로 갈등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통해 스스로가 차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순간 그 갈등의 폭과 깊이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더불어 이와 같은 갈등 구조가 반복·재생산되고 고착화된다면, 한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두 공동체가 상호 간 이해와 존중을 배울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앞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국제 이주 이론에 근거하여 특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대를 가지고 있던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안정적 정착에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나는 관계의 측면이다. 경제적인 원인을 이유로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일반 국민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더 제한된다고 판단한다면 일반 한국 국민에 대해 부정적 감정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함께 생활해 나가면서 문화, 인식 측면의 갈등마저 깊어진다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 집단적으로 남한 사회에 반발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생계유지가 불안해지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 주목할 점은 돈과 관련된 범죄 수법에 피해를 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다는 것이다. 장준오·이정환(2006)에 따르면, 범죄 피해에 대한 설문문항에서 총 응답자 49명 가운데에 45명의 응답자가 '사기' 피해경험이 있음을 밝혔다.²⁹⁾ 이는 총 조사자 수 214명에 대해서는 20% 정도에 그치지만, 전체 범죄 피해자들의 수를 고려하면 일

29) 장준오·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피해 실태 연구』.

등히 높다. 북한이탈주민이 피해자인 경우 ‘사기’ 범죄는 특히 경제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수집단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이나, 가진 돈을 몇 배로 불려준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이나 범죄 양상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잘 갖추어진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이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혹은 교육이 부족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범죄의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노동시장에 첫 진입할 때 저임금의 고용 환경에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 저임금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가 쉽지 않다. 분절노동시장 가설에 따르면 노동시장을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파악하는데, 노동시장이 분절된 구조이면서 그 구조가 위계적 질서를 띠면 북한이탈주민 집단은 주로 하위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적다면, 그들의 범죄 가해 혹은 피해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 역시 어려워진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기회 불균등 및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일탈하위문화이론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 포기율 역시 어두운 미래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학교 적응 문제, 특히 학교 중도 탈락 문제이다.³⁰⁾ 2008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에 달하고 있어서 학교중도 탈락

30) 오명도 외,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 뜻하는 단기적,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적응 문제가 우려된다.³¹⁾

학교는 청소년이 가정과 이웃관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이차집단으로, 학습과 학교생활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문화가 전승되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독립된 사회인의 역할, 동료 사회구성원 간의 협조 및 연대의식 등을 학습하고 개성을 형성하는 곳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은 장래 사회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학습한다. 즉 학교 교육은 형식적인 사회규범과 문화적 요소를 내면화하고 동시에 반사회적인 요소에 대한 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코헨(Albert Cohen, 1955)은 일탈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비행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³²⁾ 즉 학교를 지배하는 가치관은 중류층이나 상류층의 가치관이며 학교 교육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목표를 성취할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하류층 청소년들에게는 지위 좌절이나 분노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학교는 이들의 미래 욕구나 충동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반발 대상이 될 뿐이며, 결국 자신들의 가치관을 인정해 주는 하위문화는 학교 밖에서 형성된다.

나아가 학교에서 동료들이나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청소년은 이들에 의한 낙인 때문에 비행화가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다. 낙인은 주로 학교 성적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학교 성적을 중요시하고 이를 학생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풍토에서는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주류가 되는 자신들만의 문화, 즉 하위문화를 형성하는데 더욱 골몰하게 된다. 결국 무단결석이나 등교 거부 등의 비행적 행

31) 위의 글.

32) Albert K. Cohen,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Illinois: Free Press, 1955).

동양식으로 변화한다.³³⁾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이다.

6. 소결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정착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찰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은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와 이에 대한 대응은 현상에 불과할 뿐 정작 어떠한 이유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를 저지르는지 이론적인 고찰이 부족했다. 이 연구는 다양한 논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연구 자료를 종합해 실태와 현황을 진단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범죄학 이론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가해 가능성과 취약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33) 김준호·노성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표 13〉 범죄학 이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발생 원인

이론적 틀	관련 내용
사회유대이론	애착, 관여, 신념 등 요소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현실태를 분석하면, 그들은 유대를 형성하기 취약한 구조에 놓여 있음.
긴장이론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고 있었던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아노미적 갈등이 유발됨.
낙인이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일탈을 조장할 수 있음.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	노동시장 진입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진입 이후에 발생하는 불평등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일탈하위문화이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많으며, 그들에게서 비행적 생활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첫째, 사회유대이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애착, 관여, 신념 등의 요소가 범죄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현실태를 분석하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과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치를 충분히 내면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신념을 형성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었다. 여가 활동의 형태, 교류의 형태 역시 혼자 보내는 방식의 비율이 높았고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유대 정도가 약하며 이들의 범죄 가능성을 억제할 만한 요소도 부족하다.

둘째, 긴장이론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품었던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대는 한국 사회에서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주관적 계층의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 있을 때보다 남한에 와서 사회적 위치가 하락했다고 인식한 이들이 많아 상대적인 박탈감 역시 증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목

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괴리에서 비롯된 아노미적 상황에 이르면 따라야 할 도덕적인 잣대가 부재하게 된다.

셋째, 낙인이론은 낙인 자체에서 빚어지는 문제와 더불어 이로 인해 형성되는 자아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과 낙인을 갖고 있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들의 실증적 자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을 사회화의 고충을 가늠하게 한다. 이러한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재정의하게 하고 우리 사회의 이방인으로 남게 해 일탈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넷째, 이주이론/경제적 불평등이론은 경제학 이론 중 하나로서 노동시장 진입과 진입 이후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노동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자체가 범죄를 빚어 낼 수 있다. 또한 진입 이후에 발생하는 불평등과 갈등도 또 다른 범죄를 초래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탈하위문화이론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일탈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학교 중도 탈락률은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일탈하위문화이론이 지적한 바, 주류 문화에 섞이지 못하고 그들만의 비행적 생활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V. 결론

북한 정부의 강력한 국경 통제로 2000년대 중반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어 가는 하였지만, 여전히 매 년 수천 명 단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에서도 통일 의지를 일관되게 내비쳐 온 만큼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다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를테면 범죄와 같은 사안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경제적 어려움, 유대 관계의 부재 등은 모두 그들의 범죄 노출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반대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이러한 특성과 그들이 겪는 제반 문제들이 범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기존의 범죄학이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 가능성과 취약성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을 통해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의 사회유대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로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분석하여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대를 형성하기 취약한 구조에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그 다음, 머튼의 긴장이론으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 당시 품었던 기대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아노미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베커와 레머트의 낙인이론을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낙인이 일탈을 조장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주/경제적 불평등 이론을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과정과 진입 이후의 경제적 불평등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코헨의 일탈하위이론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에서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음을 근거로 하여,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논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연구 자료를 종합해 실태와 현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를 기존범죄학 이론에 비추어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가해 가능성과 취약성을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 제시까지 다다르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이는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미래의 통일 한반도 시대에 해결해야 할 사회통합 문제를 생각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범죄 연구가 향후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접수: 2015년 3월 22일 / 심사 : 2015년 5월 12일 / 게재확정: 2015년 5월 13일

【참고문헌】

국문단행본

-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연구』. 서울: 통일부, 2009.
- 김윤영. 『북한의 범죄실태와 보안기관의 대응책』.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9.
-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재엽 · 김희진. 『폭력피해 탈북여성 맞춤형 자립지원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12.
- 김준호 · 노성호. 『학교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1.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2.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 오명도 · 박순용 · 양희창 · 박형동 · 조명숙 · 채혜성 · 김신동.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2008.
- 이금순 · 강신창 · 김병로 · 김수암 · 안혜영 · 오승렬 · 윤여상 · 이우영 · 임순희 · 최의철. 『북한이탈주민 적응 실태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창무 · 김주찬 · 한상철 · 신현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 장준오 · 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장준오 · 이정환.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국문논문

- 고성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와 이탈.” 정영철 · 고성호 · 최봉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 김연희 · 전우택 · 조영아.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 문제 유병율과 영향요인: 2007년

- 입국자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2010). pp.141~174.
- 설동훈. “한국사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새로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 『사람』 제34호(2009). pp.53~77.
- 윤인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 『아세아연구』 제50권 2호 (2007). pp.106~143.
- 윤홍희.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실태와 대책.” 『마약이 아닌 건강을 생각하세요』. 마약퇴치운동본부 2010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2010년 6월 24일). pp.75~119.
- 조동운·서기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제9권 (2012). pp.71~92.
- 조동운·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신성장 산업발전과 문화거버넌스』.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2011년 6월 17~18일). pp.447~467.
- 조영아·전우택·유정자·엄진섭.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2호(2005). pp.467~484.

영문 단행본 및 논문

- Becker, Howard Saul.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 Cohen, Albert Kircidel.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Glencoe, Illinois: Free Press, 1955.
- Cooley, Charles Horton.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 Lemert, Edwin McCarthy. *Social pathology: a systematic approach to the theory of sociopathic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1951.
- Tannenbaum, Frank. “The dramatization of evil.” Earl Rubington and Martin S. Weinberg. eds. *Deviance: The Interactionist Perspective*. London: Macmillan, 1973.
- Travis, Hirschi.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신문 및 정기간행물

- 한관수. “북한 위기상황시 난민 규모 & 탈출경로 시뮬레이션.” 『신동아』 4월호(2010).

“[국감심윤조 ‘탈북자 절반 기초생활수급자.’” 『뉴시스』. 2012년 10월 8일.
“‘생계 막막해서...’ 새터민 집단 보험사기.” 『부산일보』. 2012년 8월 23일.
“탈북자 5명 중 1명, 범죄수렁에 빠졌다.” 『한국일보』. 2008년 7월 29일.
“탈북자 정착지원 사업 대대적 손질.” 『서울경제신문』. 2012년 6월 20일.

기타

경찰청 보안국. “북한이탈주민 범죄 및 피해예방 대책.” 2007년 2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 편람』. 서울: 통일부, 2012.

The Theoretical Review on Cause and Real Condition of crimes by North Korean Defectors

Kim, Seong-Hoon · Choi, Jae-Yong · Lee, Youn-Ho (Dongguk University)

Abstract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to South Korea has progressively increased,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ir maladjustment have also been growing. Especially, relatively higher crime rate of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swiftly controlled, but meaningful studies on this area are not yet fully proceeded. Although the purpose of previous studies was to promote North Korean defectors' stable settlement, there have been only few studies with the approach on the potential problems from situations in which their stable settlement cannot be accomplished. Therefore, in this study prior to preparing practical countermeasure I diagnosis North Korean defectors' real condition by synthesizing pervious studies under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cause of their crimes. Through on this process, I apply several criminal theories such as social bonding theory, strain theory, labeling theory, immigration/economic inequality theory, delinquent subculture theory as an analytic framework, and tr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 Crime Rate, Criminological Theory, Victimization, Saeteomin

김성훈(Kim, Seong-Hoon) _____

동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북한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최재용(Choi, Jae-Yong) _____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청소년 지위비행 원인의 성별비교: 일반범죄이론들을 중심으로”(공저),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Mean-World View와 공명가설을 중심으로”(공저) 등이 있다.

이윤호(Lee, Youn-Ho) _____

Michigan State University 에서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 및 사회과학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현대사회와 범죄』, 『범죄, 그 진실과 오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상활동과 범죄피해”(공저) 등이 있다.